

공적 이성으로서 종교적 이성에 관한 연구

- 미로슬라브 볼프를 중심으로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
- III. 공적 이성과 종교의 자리
 - 1.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중립적 합의
 - 2.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 IV. 종교적 이성의 공적 참여
 - 1. 이성의 신, 이성의 종교
 - 2. 종교적 이성의 포용성: 확대된 사고와 이중적 보기
 - 3. 종교적 이성의 공공성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2>

• ABSTRACT •

A Study of Religious Reasons as Public Reasons: Focusing on Miroslav Volf

Lecturer, Kim, Seung Hw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criticizes the antiintellectualism of Korean Protestantism and proposes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reason as a public reason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of the church. The religious reason is not separated from public reason, and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complementarily in a post-secular society. First, through Richard Hofstadter, I will explore the anti-intellectualism of American Christianity and deal with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 In addition, to explain how religious reason can contribute to public reason, I will investigate John Rawls and Jürgen Habermas' concepts of public reason. Rawls accepts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participation as a reasonable doctrine in the process of 'overlapping consensus,' Habermas also suggests participation in religion that guarantees 'communication rationality' in the public sphere. Through these, religious reason could be a component of the public sphere. Finally, this study examines Volf's "enlarged thinking" and "double vision" to suggest "reasonableness," "inclusiveness," and "publicity" in religious reason.

Key words: Public Reason, Religious Reason, Miroslav Volf, John Rawls, Jürgen Habermas

I. 들어가는 말

종교의 공적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¹⁾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공성의 실천과 공공선(common good)의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종교는 시민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덕성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적 영역은 세속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종교 기관과 그곳에 소속된 시민들에게는 닫혀 있는 곳이 아니다.²⁾ 공적 영역에서 중립성을 이유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다원적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와 평등의 가치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언어, 인종, 문화,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인과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전제하는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이며 한 시민이 지니는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종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합리적 이성으로 논의를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며, 다원적 공론장에서 타자의 목소리에 열린 자세로 임하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 태도가 요청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1) 하버마스는 라칭거 추기경과 대화하면서 종교의 공적 참여를 주장하며 현시대를 후기-세속(post-secular)사회로 규정한다. 후기 세속이란 표현은 종교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동기 부여와 태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공공의식 속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중요한 규범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런 사회에서 공공의식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 입장을 수용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더 증가하고 있다. Jürgen Habermas, Joseph Ratzinger *Dialektik der Säkularisierung*, 윤종석 역, 『대화-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서울: 새물결, 2009), 51.

2) Clarke E. Cochran, *Church, State and Public Justice*, 김희준 역,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8.

반지성적(anti-intellect) 행태를 볼 때, 한국교회의 공적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광훈 현상’으로 대표되는 극우 개신교 진영의 광장의 정치적 활동은 우파 정치와 보수 신앙이 교묘한 결합으로 (기독교)시민들에게 호소했지만 그 이면에는 합리적 이성과 성찰적 사고를 잃어버린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가 짙게 깔려 있다.³⁾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해 공적 이성(public reason)으로서 종교적 이성(religious reason)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먼저 리처드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의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통해 미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를 살피고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적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이성이 어떻게 공적 이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존 롤즈(John Rawls)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적 이성 개념을 살핀 후 종교적 이성의 자리를 찾아볼 것이다. 롤즈의 ‘중첩적 합의’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공적 이성의 상호성과 포용

3)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매우·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76%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운실에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던 것을 감안 할 때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10%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21%의 중에 개신교인이 70%를 차지했던 반면 비개신교인은 9%에 불과했다. 조현, 2021.1.30, “코로나 1년”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 76% 신뢰하지 않아,” cho@hani.co.kr, (접속: 2021.9.19)

4) 종교적 이성은 한 종교 전통 안에서 공유된 교리와 신념의 체계이다. 완성된 체계로서 닫혀진 이성이 아니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논의되는 종교의 공적 이성이다. 로빈 로빈은 종교적 이성은 신자들의 종교적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적 담론의 장에서 하나의 해석의 관점과 실천을 제공한다. 세속 이성은 시민들간의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만 종교적 이성은 신적인 권위와 전통(교리)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Robin W. Lovin, “Consensus and Commitment: Real People, Religious Reasons, and Public Discourse,” edited by Kenneth L. Grasso and Cecilia Rodriguez Castillo, *Theology and Public Philosophy*, (Maryland: Lexington Books, 2012), 103.

성을 다룬 후 여기에 응답하고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확대된 사고’와 ‘이중 보기’로 통해 종교적 이성의 ‘합리성’, ‘포용성’, ‘공공성’을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반지성주의의 기원을 몇 가지로 서술한다. 바로 ‘복음주의’, ‘원시주의’, ‘실용주의’, ‘반공주의’이다. 그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반지성주의의 토대에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호프스태터는 지성(intellect)과 지적 능력(intelligence)을 구분한다. 지성은 음미하고 숙고하고 의문시하고 상상하는 창조적인 사색인 반면, 지적 능력은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⁵⁾ 지적 능력을 지닌 지식인들은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지성인들은 사회를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합리성 너머의 관점으로 해석과 재해석을 반복한다.⁶⁾ 지성의 성찰은 특정 전문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통찰하고 실천하는 행위로서 마땅한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토대가 된다.

먼저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다. 비판적 성찰을 상실한 복음주의 신앙은 강력한 대중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지식과 지식인을 혐오하는 포퓰리즘을 통하여 집단 광기로 나타났다. 이 흐름에는 ‘부흥주의’(revivalism)가 동력을 제공했다. 미

5)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서울: 고유서가, 2017), 49.

6) 위의 책, 47.

국의 초기 교회는 청교도의 극단적 지성주의를 추구했던 성직자들의 지적인 설교가 주도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점점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 빠르게(손쉽게) 시민들을 개종시키는 부흥주의 문화로 발전한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 19세기의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 20세기의 빌리 선데이와 같은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 학문적이고 사변적인 설교는 퇴출되고 성령의 조명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종교 경험주의와 감정주의에 빠지게 된다.⁷⁾

미국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친 부흥 운동은 마치 열병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18세기에는 미국의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19세기는 노예 제도 폐지와 여권신장운동, 20세기는 민권운동과 소비자 운동으로 연결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등’을 추구하는 ‘반지성주의’란 점이다.⁸⁾ 모두가 평등하기에 우월한 지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무지의 평등주의’는 민주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가치의 다원주의’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반엘리트주의와 집단 광기로 무장한 포퓰리즘(populism)으로 발전했다.⁹⁾ 지식과 지성은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퇴출된다.

이러한 미국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는 토착화 과정에서 원시주의(primitivism)와 결합한다. 원시주의는 인간 내면의 자연적 힘을 되살리면

7) 모리모토 안리, 강혜정 역, 『반지성주의』 (서울: 세종서적, 2016), 191-206. 생전에 50만 명이 설교를 들었다던 피니는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했으며 목사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성령의 인도만이 필요할 뿐 신학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무디의 전도사역은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는데, 상당한 규모의 헌금과 후원을 통해 대규모 선전과 홍보를 통해 인원을 동원하고 미디어에 알려면서 급성장한 경우이다. 초등학교만 졸업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무디는 어느 곳에서도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특정 교파로부터 목사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8) 위의 책, 55.

9) 김현준, “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적 영성을 가졌는가,”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248.

서, 직관과 감성을 통해 대자연에서 신과 연결되거나 자연주의 혹은 초월주의로 나아가게 했다.¹⁰⁾ 원시주의는 극단적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처럼 자연의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며 지적인 도시 문명을 거부하며 신과의 초월적 관계에 집중했다. 이들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를 혐오했고 유럽의 지적 권위 체계를 거부하면서 자연 그 자체를 신성의 상징으로 해석한다.¹¹⁾ 또한 미국의 반지성적 사고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실험 정신을 이어받은 기업가들의 ‘실용주의’와 1950년대 불어 닥친 매카시즘의 ‘반공주의’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시장경제 질서 아래 가치의 의미보다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가 정신은 성찰과 사색을 나약한 것으로 평가절하했으며, 냉전시대 미국사회를 지배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미국을 신봉하도록 하였다. 냉전체제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십자군의 성전’(holy war)처럼 종교적 행위이다.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는 종교 문화적 토양으로서 ‘원시주의의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고,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의 흐름에서 강력한 동력을 제공받으며,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적 극우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광장의 광기로 폭발되었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문자주의를 신봉하는 확고한 믿음 체계를 견지하기에 ‘신념의 정치’라는 강력한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적과 나를 구별 짓고 파멸하려는 공격적인 정치적 태도를 띤다. 또한 구약적 심판의 신관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과 성적인 범죄자에

10) Richard Hofstadter, 『미국의 반지성주의』 82.

11) 모리모토 안리, 『반지성주의』 146-151.

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인정한다.

한국 개신교는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근본주의적 성경론과 종말론이 일찍부터 유행했다. 성경무오설과 축자영감설, 문자적 성서 해석으로 상징되는 근본주의적 성경론, 그리고 이러한 성경론과 비판적 역사관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전천년설적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었다.¹²⁾ 근본주의의 출현 배경에는 근본주의가 근대주의의 위협에 대한 신학적 반작용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개신교 내의 현상을 넘어서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등의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¹³⁾ 근본주의는 근대성의 개방적, 진보적 대응을 모두 반기독교적 혹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거부했다. 신적 권위 또는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성을 배제하면서 다시 종교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근본주의가 이성과 과학, 경험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조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도 계시와 믿음, 성경의 권위를 대치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¹⁴⁾

또한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는 ‘반공주의적 극우주의’를 표방한다.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출발한다.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선교하던 이들이 지역의 사회주의자들과 충돌하면서 반공적 태도가 형성되었다. 그 후, 1932년 9월 예수교연합공의회의 제9회 총회에서 제정, 발표된 12개조의 ‘사회신조’에서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 제정 등의 사회개혁 지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일체의 유물교육, 유물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수단’에 의한 사회개조와 탄압에 반

12) 배덕만,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정치적 극단주의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214.

13) 위의 책, 217.

14) 위의 책, 220.

대한다고 밝히면서 개신교 전체가 반공주의로 입장을 정리했다.¹⁵⁾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인사들은 사회주의의 공격에 앞장섰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반공주의가 시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주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개신교는 공산주의를 무신론을 신봉하는 사탄의 체제로 여겼고, 공산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면서 반공주의적 보수신앙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개신교의 반공주의에 대한 철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들어 조금씩 변화를 맞이한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일부 개신교 인사들과 단체(도시산업선교회, 세계교회협의회)들이 용공으로 몰리면서 개신교는 정치권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했다. 개신교 보수 진영과 정치 세력이 손을 맞잡은 직접적인 사건은 ‘국가조찬기도회’이다. 1965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김준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정교 분리하에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신앙심이 결합한 순수한 의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군부독재정권을 옹호하면서 전두환과 신군부세력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낸 모세로 비유하면서 민족의 큰 지도자로 추앙하기 이르렀다.¹⁶⁾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반공주의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군부 정권의 비호 속에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서 ‘뉴라이트 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의 뉴라이트 운동의 종교, 정치적 성향은 ‘보수 정치적 행동주의’이다. 신앙적으로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이 개신교인의 사명이라고 보았으며, 정치적으로는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서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보수

15)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70(2005), 42-43.

16) 김민아,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 등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8(2018), 84-88.

정치적 행동주의는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과 ‘국가조찬기도회’의 종교·정치적 태도의 선별적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¹⁷⁾ 개신교 뉴라이트 운동은 배타주의와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를 악이나 사탄 등의 종교적 수사를 이용하며 배척한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친북·좌익 세력을 극도로 혐오하며 이들을 ‘악한 영’에 빚대고 있으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함을 강조한다.¹⁸⁾ 또한 1980년대 중후반에 반공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교회협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몸집을 키우면서 반공적 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광장의 구국기도회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전광훈 현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극우집단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개신교 극우집단은 자신들의 신념을 순수한 애국심과 신앙심으로 신성화한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를 경우 마음을 완전히 닫으며, 우군과 적국을 구별하여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의 흐름은 공적인 영역에서 합리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독백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 해왔다.

III. 공적 이성과 종교의 자리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적 이성이 공적 이성의 한 부분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공적 이성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적 이성은 합의의 과정에서 다수가 이성적 논의를 통한 상호 작용에 관여할 수 있는 이성이다.¹⁹⁾ 시민 다수가 합리적 이성의 철차

17) 위의 논문, 100.

18) 위의 논문, 110.

19)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65(2004), 267.

를 통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신뢰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존 롤즈의 ‘중첩적 합의’와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종교적 이성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미세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적 이성에서 합리성과 상호성을 전제로 하며, 종교를 공적 가치와 신뢰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인정한다. 종교적 이성이 다른 사회적 교설들(doctrines)처럼 공적 이성으로 수용되는 절차적 과정인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거친다면, 다시 말해 롤즈의 주장처럼 합리성과 합당성으로 다른 교설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공적 이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롤즈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적 이성의 특징을 살피고 종교적 이성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중첩적 합의

존 롤즈가 말하는 공적 이성이란 사회의 정치적인 근본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성이다. 이성이 ‘공적’이란 뜻은 첫째, 그것이 공중(public)들의 이성이란 뜻이며 둘째, 공적 이성이 다루는 주제가 근본적인 정의 문제, 정치적 문제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셋째, 그 문제가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통해 검토된다는 것이다.²⁰⁾ 공적 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을 합의하고 자신의 교설을 정당화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초기 롤즈는 『정의론』에서 공적 이성의 제한적 사용을 주장한다. 공적 이성은 주로 정치적 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되며, 입헌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 영역을 가졌다. 롤즈는 공적 이성과 비공적

20)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과주: 동명사, 2020), 346.

이성을 구분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속고와 교회,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비공적인 이성으로 구분했다. 초기 롤즈의 공적 이성이 배제의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교설(doctrine)들이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하지만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이성의 폭넓은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민주 시민들은 각자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틀 내에서 속고할 때 공적 이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동등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민적 유대감을 형성한다.²²⁾ 롤즈는 칸트의 ‘순수 이성’을 대신하여 ‘합리성’이란 개념을 제안하면서 합리적 이성의 명령만을 정의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 합리적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조건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설명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시 하나의 시대적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일부이며, 그러한 사회 역시 특정한 문화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²³⁾

롤즈가 공적 추론의 과정에서 다른 교설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후기로 갈수록 넓은 견해(wide view)로 선회한다.²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정치적 이유를 제시할 때 공적 이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합당한 교설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정의관을 관점에서 상호 합의를 통하여 다른 이성들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자신들의 교설을 인정받

21)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268.

22) 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643-644.

23)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배제와 포용』 316-317.

24) 박선영 외,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 사회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77-78.

25) 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659.

게 하려고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적 이성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²⁶⁾ 여기에서 롤즈가 공적 이성의 ‘합리성’(rationality)과 함께 사용한 ‘합당성’(reasonableness)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롤즈는 칸트처럼 모든 시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줄 수 있는 공적 선으로 이성을 바라보면서 공적 이성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합당성’에 주목한다. 그는 합리적인 것(the rational)과 합당한 것(the reasonable)을 구분하면서 서로를 보완적 관계에 위치시킨다. 각각의 교설들의 논의를 위한 정치적 정의관은 단순히 합리적인 것으로만 도출되지 않는다. 합리적 행위자는 평등한 인격체로서 타자를 인정하고 협동하려는 특정한 도덕적 감수성이 결여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당성이 필요하다. 합당한 것은 평등한 존재들이 다른 사람과 공적인 세계에 들어가 서로 공정한 협동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서 형성된 사회적 덕목이다.²⁷⁾

『정치적 자유주의』에 나타난 롤즈의 공적 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성의 영역으로 공동의 공적 선을 추구하며 정의와 배려의 측면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공적 이성으로 인정되는 절차의 핵심은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이다. 중첩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타인의 정치적 관점을 인정하고 그 관점이 비정치적인 가치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다.²⁸⁾ 롤즈는 공적 이성이 시민들의 공적 삶에 필요한 이성이기에 그 중심에는 타자를 향한 존중과 관용적 태도인 시민적 우정(civic friendship) 또는 시민 교양(civility)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시

26) 근본주의적인 종교와 전체적 및 독재적 지배자들은 종교적으로 진실하거나 철학적으로 진실한 것은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에 우선한다고 믿는다. 위의 책, 694.

27) 위의 책, 147-148.

28) 위의 책, 262.

민들이 타자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공적 이성은 작동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적 이성은 합당하게 수용될 수 있는 상호간의 언어 작용으로 공공선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규범적인 환경에서 이해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가 된다.

만약 기독교 공동체가 윤리와 정치적 의미를 분별하는 작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기보다 공적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일정부분 제한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은 비종교의 타자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행위이다.²⁹⁾ 또한 다양한 정치적 정의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인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을 위한 필수적 태도이며 정치적 자유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메커니즘과 같다. 이를 통해 종교적 이성은 사회적 안정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공공선의 추구에도 기여하게 된다.³⁰⁾

롤즈의 공적 이성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보여준 공적 이성의 특징은 개방성과 합리성이다. 인종, 문화, 언어, 지역 등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며 각자의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한 교설들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공유된 가치와 동기, 정서들을 취합한다. 따라서 롤즈에게 종교적 이성이 공적 이성에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어찌면 합당한 것들로부터 공적 이성이 지지를 받아야 하기에 종교적 이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9) Robert Gascoigne, "Christian Hope and Public Reason," ed., Nigel Biggar, Linda Hogan, *Religious Voices in Public Pl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31-132.

30) 김은희,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철학』 103 (2010), 266.

2.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이성의 합리성을 제안한다. 합리성은 인간의 내면 의식안에서 형성되는 무엇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성화의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는 ‘논증적 대화’의 합의 형성적 힘에 대한 근본적 경험의 성질이다. 논증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자신의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따라 용인된 공동의 확신으로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과 삶의 상호주관성을 동시에 확인한다. 어떤 의견이 합리적이려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의사소통 참여자와 세계의 어떤 것에 관해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³¹⁾ 합리적인 발언은 비판 가능성을 취하기에 언제든지 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자유를 뜻한다.³²⁾ 이성이 공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직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타자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토의를 위한 공간, 즉 ‘공론장’이다. 하버마스의 관심은 공적 이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있다. 그는 여론(public opinion)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일치를 이루고 확산되는지, 그 과정을 주목하면서 공론장, 즉 공적 이성이 만들어지는 담론화 과정을 제안한다.

공론장에서의 공적 논의는 보편적 시민들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것

31) Jürgen Habermas,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 이론1』 (과주: 나남출판사, 2006), 46-48.

32)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2009), 48.

으로, 왕정과 교황의 절대 지배 체제에 저항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사적 의견들이 합리적 동의와 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공 정신’(public spirit)이 담긴 여론으로 발전한다. 여론은 공론장에서의 비판적 토론을 통해 참된 의견으로 정리된 의견이라는 엄밀한 의미를 갖게 된다.³³⁾

이성이 공적으로 접근가능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수많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한 전제는 지적이고 수용 가능한 실천적인 방식을 요구한다. 법률적 지식, 의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등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공적 이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중들의 접근 가능성은 종교적 이성만큼이나 쉽지 않다. 특정 집단의 전문가들이 소유하고 생산해내는 지식을 모두 공적 이성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공적 이성은 이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특징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타자를 배제하거나 자기 집단의 이익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론장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적인 공간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³⁴⁾ 공통의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합리성이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공적 이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상호이해의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행위이다. 의사소통 행위는 참여자들이 객관세계의 어떤 것, 사회 세계의 어떤 것, 주관 세계의 어떤 것에 동시에 관계하면서 행하는 협동적 해석과정이다.³⁵⁾

하버마스는 종교가 공적 이성이 작동하는 배경에서 시민들 간의 신뢰

33)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 2013), 205-209.

34)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38.

35) 김혜성, “합당성과 합리성의 시민윤리,” 『윤리교육연구』 13(2007), 130.

와 믿음 체계를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법과 통치 이념의 근거로서 종교는 타자의 이성적 활동을 인정하고 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한다.³⁶⁾ 그는 이성이 공론장 안으로 들어갈 때 번역(translation)되어야 할 것은 제안하면서 그것이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음을 인정한다. 탈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이성의 정치적 개념화와 추상화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이성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다.³⁷⁾ 종교가 지니는 가치와 희망들은 비종교인들과 공론장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며 적절한 개념화로 번역을 일어날 때, 그러한 번역은 공동체가 문화 안에서 공유하는 공통의 메타포를 통해 상호 참여적일 수 있다.³⁸⁾ 만약 종교 이성이 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시민들의 이성과 삶이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들은 공적인 일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정치 영역에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계몽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종교적 이성의 긍정적 기여를 기대하면서, 후기 세속(post secular)의 관점에서 종교적 이성의 번역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안한다. 더 나아가 그는 종교 시민(Religious Citizens)에게만 합리성의 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면서 공적 이성과 종교적 이성은 상호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과 짐을 서로 나누어지길(equal burden) 주장한다.³⁹⁾

36) Jürgen Habermas, "The Political," ed., Eduardo Mendieta, Jonathan Vanatwerpen, *The Power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18.

37) Joshua Duclos, "Religious Reasons In the Public Sphere: A Challenge to Habermas," *Philosophy & Theology*, 31(2019), 133.

38) Craig Calhoun, "Secularism,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 eds., *Rethinking Secular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84.

39) Paolo monti, "A Postsecular Rationale?: Religious and Secular as Epistemic Peers,"

이처럼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을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점은 공적 이성의 한 요소로서 종교적 이성의 참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롤즈는 중립적 합의를 통해서 합당한 교설들이 공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공적 이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종교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버마스는 종교적 이성이 변역을 통해서 소통 가능한 합리성으로 인정될 때 공론장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들을 통하여 종교적 이성이 공적 이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공적 이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이성이 공적 이성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미로슬라브 볼프를 통하여 종교적 이성의 ‘합리성’과 ‘포용성’ 그리고 ‘공공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IV. 종교적 이성의 공적 참여

종교적 이성은 그 자체로 공적 이성의 한 축이다. 공적 이성은 전통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 전통은 종교문화를 통해 형성된다. 공적 이성과 종교적 이성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적 정의와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종교는 필수적이다.⁴⁰⁾ 후기 세속사회에서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기를 원치 않으며 공공선 형성과 공적 이성의 회복을 위한 참여에 적극적이길 원한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제안하는 공적 이성으로서 종교적 이성은 ‘포용성’과 ‘상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Philosophy and Public Issues, 2(2013), 237.

40) Craig Calhoun, "Secularism,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81.

1. 이성의 신, 이성의 종교

미로슬라브 볼프는 『알라』에서 기독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이성(reason)의 유무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성의 신’(God-as-reason)이지만 이슬람의 하나님은 ‘순수의지의 신’(God-as-pure-will)이다. 전자가 논증과 심의 그리고 설득을 장려한다면, 후자는 순종을 요구하고 폭력을 장려한다. 기독교의 ‘이성의 신’이 신앙에 대한 이성적인 간증과 정치적 심의 절차를 뒷받침한다면, 이슬람의 ‘순수의지의 신’은 무력에 의한 신앙 전파와 신의 의지를 해석하는 자들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뒷받침한다.⁴¹⁾ 그는 베네딕트 16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신앙과 희랍적 이성 간의 결합이라 말한다. 로고스는 말인 동시에 이성, 즉 창조적이며 자기 소통이 가능한 이성, 정확하게 이성이다. 볼프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하나님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 기독교에서 이성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곧 이성이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이다.⁴²⁾ 이성의 신을 따르는 신앙인은 이웃 종교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대화와 협의의 과정에 헌신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신을 불가해하며 자의적 신으로 생각한다면 복종과 폭력성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 볼프는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여겼다.⁴³⁾ 이성을 상실한 신앙은 신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적대시하며 개종을 강요한다. 순종과 헌신을 주장하는 신앙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41) Miroslav Volf, *Allah*, 백지운 역, 『알라』 (서울: IVP, 2016), 40-41.

42) 위의 책, 39.

43) 위의 책, 55.

신앙 형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에서 이성과 제외하거나 제한적인 수용으로 인식한다.

물론 신앙을 상실한 이성의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성은 확일성과 유일성을 무기로 모든 주어진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합리적 방법론과 통일된 학문을 꿈꾸게 했다. 합리적 이성은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며 단 하나의 진리 체계로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 현대사회는 근대성이 사회적 통제와 합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알맞은 계획과 결정적인 논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⁴⁴⁾ 볼프는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합리적 이성이 주도했던 현대사회는 합리적이 아닌 이들을 배제하고 비인간의 구역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이성이 사용되었던 과오를 지적하면서 근대적 이성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치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현대인들이 합리적인 계획과 논증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이성만으로는 좋은 삶의 비전을 설명할 수도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없다.⁴⁶⁾ 볼프는 세속 이성이 신앙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하며 모든 이성의 토대가 되는 신적 이성, 즉 로고스가 제시하는 자기를 내어쫓는 사랑이라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의해 치유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⁴⁷⁾

볼프는 인간이 이성의 깊은 내면에서 성찰하여 합리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특히 신교와 구교의 30년간에 걸친 종교 전쟁의 산물로 이해한다. 다시말해 합리성이 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개신교와 가톨릭 군대가 자신들의 신학적 주장을

44)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385.

45) 위의 책, 92.

46) Miroslav Volf, Matthew Croasmun, *For the Life of the World* 122.

47)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42.

우위에 두려고 시도했던 상황에서 신앙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이성을 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⁴⁸⁾ 합리적 이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요한 성찰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이성은 하나의 중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순수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요청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기에, 공적 이성이 중립적 사고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볼프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라는 하나의 귀결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오히려 그는 토론의 참여자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공동체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과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⁴⁹⁾ 이성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에 이성의 본질적인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볼프가 합리적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담론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목적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대의 폭력적 이성은 죄로 물든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한 구속받을 필요가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불의한 이들을 포용하려 했던 사람들만이 이성과 담론을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볼프는 공적 이성이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성을 통해 마주한 타자들과의 화해와 평화를 더욱 중요시했다. 그에게 포용과 화해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의 해석학’(hermeneutics of love)이다. 마르크스나 니체 그리고 리쾨르 등이 추구한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은 텍스트를 분석하며 깊은 의미를

48) 위의 책, 443.

49) 위의 책, 328.

50) 위의 책, 469.

찾고, 텍스트에 감춰있는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상황들을 파헤치지만 ‘사랑의 해석학은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사랑의 진리를 보존하고자 자애로운(charitable)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랑은 지적인 대화의 파트너(비판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다.⁵¹⁾ 종교적 이성은 합리적 이성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이성이 지향하는 대화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종교적 이성은 이성의 공적인 특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화의 파트너를 인정하고 수용하려 한다. 종교적 교리와 신학의 전통을 이유로 타자를 배제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전개하지 않으며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대화와 설득을 추구한다. 이러한 종교적 이성의 특징은 공적 이성으로서 확장성과 상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종교적 이성의 포용성: 확대된 사고와 이중적 보기

볼프는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이 가지는 종교를 향한 포용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로서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와 비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도덕적 가치의 인정으로서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⁵²⁾ 볼프는 종교적 이성이 공적 이성으로서 상호성과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개신교) 시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충성할 때 우리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 공간은 포용의 장(field)으로 관계적, 사회적, 이성적, 정서적인 모든 영역이 중첩된 곳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격은 타자성에 의해 더욱 풍성해진다.

51) Miroslav Volf, Matthew Croasmun, *For the Life of the World* 142.

52) Miroslav Volf, 『인간의 변형』 173.

인격, 즉 다수의 타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는 인격이다.⁵³⁾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 하시며 서로를 향한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의 페리코레시스 (*perichoresis*)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원리와 같다. 사회적 관계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삼위의 정체성은 확일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 각각의 위격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며 서로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삼위일체 사상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와 일치를 향한 평화를 촉발시키는 근거가 된다.⁵⁴⁾ 관계적 삼위일체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인격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한다.⁵⁵⁾

이러한 상호성과 개방성은 신앙의 감정과 확신의 차원에 머물지 않으며 이성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세속 이성은 자기 이해 충족적이지만 종교적 이성은 그것을 넘어선다. 특히 기독교의 이성의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신적 이성을 선물하셨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채워질 때 가장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한다.⁵⁶⁾ 인간은 신의 이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진정한 보편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종교적 이성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 인식의 확장과 연대까지로 이어진다. 지적 연대는 얕의 궁극인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이성은 절대적 이성으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

53)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77-78.

54)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74.

55)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45.

56) Miroslav Volf, 『알라』 57.

며 끊임없이 타자를 향한 환대와 열림으로 지적 연대와 지성의 연결을 취한다.

볼프가 추구하는 공적 이성의 목표는 진리 추구하고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사랑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이해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는 ‘해석학적 호의’(hermeneutical hospitality)를 통하여 상대방의 해석에 동의하고 전반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제안한다.⁵⁷⁾ 볼프는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아렌트가 제안한 ‘확대된 사고’(enlarged thinking)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판단은 엄격한 고립이나 고독의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추론하고 성찰하려는 태도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성적 의지를 포함한다. 확대된 사고는 도덕적 신념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확대된 사고는 소통적 윤리의 주춧돌이다. 결론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대화를 추구하면서 도덕적 원칙에 관한 합리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⁵⁸⁾

세속의 배타적 이성은 타자 없는 세상, 타자를 배제하는 믿음을 추구한다. 근대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왔던 ‘인종 차별’, ‘홀로코스트’,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장소, 성별 등으로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시킴으로 타자를 비인격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구분짓기의 핵심은 근대적 동일성의 지향으로 구별과 판단으로 상호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타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성은 곧 죄의 ‘배제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57) Miroslav Volf, 『광장에 선 기독교』 191.

58)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335.

배제,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불치병 환자들의 배제는 거짓된 이성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태도라 비판한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강요된 순수함인 위선적 무죄함은 더럽혀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의 마음과 세계로 들어오는 타자를 밀어내는 판단적 행위가 될 수 있다.⁵⁹⁾

세속의 한복판에서 교회는 정치적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쟁하는 다른 이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삼위일체의 관계방식을 통해 수렴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타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관점을 뒤집으면서 우리는 타자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전통에서 무시되거나 심지어 거의 잊혔던 자원을 재발견할 수 있다.⁶⁰⁾ 이를 위해 볼프는 ‘이중적 보기’(double vision)를 제안한다.

- 첫째, 먼저 상대방과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기억해 둔다.
- 둘째, 상상 속에서 당신 밖으로 나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 셋째, 상대방의 눈으로 당신 자신과 상대방을 관찰한다.
- 넷째,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발견한 것을 비교한다.
- 다섯째, 그 과정을 반복하다.⁶¹⁾

위의 다섯 가지로 제시된 ‘이중적 보기’는 이성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옳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가 옳은지를 살펴보기 전에 각 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목표는 공통적 이해, 왜곡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중적 보기’는 상대방을 바르게 알기 위한 방법이며 이웃 사랑의 명령을 적용한 이웃에

59) 위의 책, 112.

60) 위의 책, 338.

61) Miroslav Volf, 『알라』 269.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다.⁶²⁾ 볼프는 ‘이중적 보기’를 종교적 이성의 인식론적 측면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 보기를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의 내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자를 향한 공간을 마련하셨고 두 팔 벌려 그들을 초대하셨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다시 팔을 벌리는 행위는 하나의 도덕적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꼭 움켜쥔 주먹과 벌린 두 팔은 모두 인식론적 입장이며 이것은 도덕적 인식을 위한 조건들이다. 팔을 벌리면서 정의에 관해 합의하고자 하는 이상을 추구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⁶³⁾

볼프의 이중적 보기는 모든 관점으로부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하다. ‘여기로부터’와 ‘거기로부터’ 보기의 동시적 추구이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보기, 즉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거기로부터의 보기는 자신의 외부로 걸어 나가는 작업이다. 동시에 사회적 경계를 가로질러 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업을 요구한다. 여기와 저기의 두 관점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왜곡하지 않는 채로 공통의 언어와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⁶⁴⁾ 볼프의 종교적 이성은 ‘확대된 사고’와 ‘이중적 보기’를 통하여 개방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한다. 또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 종교적 이성은 관계적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려는 의도성을 띤다. 신적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의 종교적 이성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안에서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깊이 연결되고 확장하려는 삼위일체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이성은 종교 자체를 위한 이성이 아니라 이성의 본질적인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2) 위의 책, 270.

63)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343-345.

64) 위의 책, 400-402.

3. 종교적 이성의 공공성

윌터스토프는 종교적 이성을 공적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거부했다. 자유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에 종교, 신념, 인종, 문화, 언어, 출신 등을 이유로 타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일 뿐이다. 윌터스토프는 ‘사회적 협의’(consocial)를 존중하는 사회는 중립성을 요구로 국가나 공중이 종교적 견해나 다른 포괄적인 견해에 중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러한 분리의 원칙은 불편부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적 협의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종교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를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그가 단순하게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배제를 문제 삼으면서 종교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이성은 정치적 다원주의에서 일반 이성이 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사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자원으로 종교의 신념과 이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동안 종교적 이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내향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다고 여겨졌다. 반대로 정치적 신념과 결정은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검증 가능한 이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받아들여진다.⁶⁶⁾ 하지만 종교적 신앙과 공적 이성은 날카롭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둘 사이는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토대로서 두 축을 이뤄왔다. 특히 공적 이성을 상실한 신앙은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신앙을 상실한 이성은 세속화된 사회처럼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

65) Nicholas Wolterstorff, "Role of religion in Decision and Discussion of Political Issues," 115. 미로슬라브 볼프, 『광장에 선 기독교』 178에서 재인용.

66) Bradley Pace, "Public Reason and Public The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2(1991), 274.

신앙은 가진 살아가는 것이 반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건전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이성과의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성과 포용성을 전제로 하는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을 수용하면서 종교적 이성의 참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볼프가 제안한 종교적 이성의 포용성과 개방성은 자아와 타자를 균형있게 바라보게 하는 동시에 자아를 넘어선 사고로의 확장을 통해 타자와의 적극적인 이성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데이비드 홀렌바흐는 이를 ‘지적 연대’(intellectual solidarity)라 명명했다. ‘지적 연대’는 단순한 이해의 관용을 넘어서서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타자들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타자를 향한 존경과 주의깊은 경청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호간에 ‘합당성’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지적 연대는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대화의 주제나 파트너를 신앙과 이성으로 구분짓지 않고 공적 삶의 다양한 이슈에 적용한다.⁶⁷⁾

종교적 이성의 공적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공적 대화’(public conversation)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에 근거한 비판적 성찰과 의사소통 및 합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세속 이성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착하면서 공적 기여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⁶⁸⁾ 신학이 공적 기여를 위해서 다양한 학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비평적 연구와 열린 토론, 사회윤리와 합의를 통한 방법론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학은 교회

67) David Hollenbach, S.J,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13.

68) Jürgen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press), 5-23, quoted in Sebastian C. H.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public Theology as a Catalyst for Open Debate* (London: SCM Press, 2011), 3.

밖의 공통의 관심사인 다양한 이슈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더 넓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과 대화하고 실제적으로 공적 영역안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해야 한다.⁶⁹⁾ 이처럼 종교적 이성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희망과 시민들의 연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롤즈가 ‘공적 이성의 재조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의 이해 가능한 교설들은 사회의 배경 문화(background culture)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며 개 개인의 시민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연대를 지지한다. 종교적 이성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희망은 미래를 향한 개방성으로 형이상학적인 신념과 가치이며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이끌어 낼 것이다.

V. 나가는 말

로버트 아우디(Robert Audi)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공적 광장에서
의 종교』에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공적 이성의 활용을 위해 종교가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논쟁을 펼쳤다. 아우디는 민주주의의 토론장에서 종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공적 이성의 세속화를 주장한다. 반대로 월터스토프는 공적 이성을 다루는데 종교적 이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면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참여를 강조한다.⁷⁰⁾ 물론 두 사람이 사용한 종교 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교를 개인의 신념과 의례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리와 전통을 갖춘 사회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69) Sebastian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Press, 2011), 23.

70) Esther McIntosh, "Philosophers, Politicians and Archbishops: Religious Reasons in the Public Sphe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2(2008), 466.

이기 때문이다. 아우디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비종교인과 이웃 종교들을 고려할 때, 종교의 참여가 타자의 사고와 자유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월터스터프는 종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내면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제외한 채 존재하라는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일 수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적 이성 논의를 보면 종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이성의 공론장안에서 대화와 합의를 위한 공적 과정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공적 이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볼프의 제안처럼 종교적 이성은 타자의 시선으로 상호 바라보기를 통한 이해의 확장과 신뢰를 확보하기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적인 섬김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성과 신앙을 대립적으로 인식해온 근대의 세속화를 넘어서서 신앙을 이성의 한 파트너로서 인식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상호간에 필요하다. 안셀무스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성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을 제시했다. 세속사회의 자기충족적이고 배제와 혐오의 논리가 난무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 즉 종교적 이성이 도움이 필요하다. 종교적 이성과 공적 이성이 조우하는 방식에서 하버마스의 번역 모델이 적당한 듯 보이지만 반대로 일방향(one-way)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종교적 이성의 보편적 차원만을 강조하기에 신념의 불완전한 이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방향적인 번역의 가능성을 포함한 논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번역이 아닌 대화적 관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면서 신앙이 공적 이성으로서 인정되며 공론장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길 소망해본다. 종교적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 상호성과 포용성이 회복된다면 종교와 세속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두의 이성으로서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70(2005), 40-63.
-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65(2004), 261-279.
- 김민아.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 등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8(2018), 73-121.
- 김혜성. “합당성과 합리성의 시민윤리.” 『윤리교육연구』 13(2007), 121-140.
- 리처드 호프스태터.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서울: 고유서가, 2017.
- 모리모토 안리. 강혜정 역. 『반지성주의』. 서울: 세종서적, 2016.
- 미로슬라브 볼프.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_____. *Alla*, 백지윤 역. 『알라』. 서울: IVP, 2016.
- 박선영 외.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 사회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63-105.
-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2009.
- 위르겐 하버마스.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 2013.
- _____.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의 역. 『의사소통행위이론1』. 파주: 나남출판사, 2006.
- _____. 조세프 라칭거. *Dialektik der Sakularisierung*, 윤종석 역 『대화-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서울: 새물결, 2009.
-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 존 롤즈.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2020.
- 클락 코크란 외 4인. *Church, State and Public Justice: Five Views*, 김희준 역.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Bigger, Nigel, ed. *Linda Hogan, Religious Voices in Public Pl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Calhoun, Craig, eds. *Rethinking Secular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Duclos, Joshua. "Religious Reasons In the Public Sphere: A Challenge to Habermas." *Philosophy & Theology*. 31(2019), 121-143.
- Hollenbach S. J, David.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 Kenneth L. Grasso. Cecilia Rodriguez Castillo. eds. *Theology and Public Philosophy*. Maryland: Lexington Books, 2012.
- Kim, Sebastian.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Press, 2011.
- McIntosh, Esther. "Philosophers, Politicians and Archbishops: Religious Reasons in the Public Sphe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2(2008). 465-483.
- Mendieta, Eduardo. Vanatwerpen, Jonathan. eds. *The Power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Monti, Paolo. "A Postsecular Rationale?: Religious and Secular as Epistemic Peers." *Philosophy and Public Issues*. 3(2013), 201-240.
- Pace, Bradley. "Public Reason and Public The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91(2009), 273-291.
- Volf, Miroslav. Croasmun, Matthew. *For the Life of the World*. Brozos Press, 2021.
- 조현, 2021.1.30, "'코로나 1년'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 76% 신뢰하지 않아." cho@hani.co.kr, (접속: 2021.9.19.).

논문투고일: 2021년 09월 27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05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공적 참여를 위해 공적 이성(public reason)으로서 종교적 이성(religious reason)의 가능성 제안한다. 신앙과 이성은 분리되지 않으며 후기세속사회에서 상호보완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리처드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를 통해 미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를 살피고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한국 교회의 반지성주의적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이성이 어떻게 공적 이성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존 롤즈(John Rawls)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적 이성 개념을 살핀 후 종교적 이성의 자리를 찾아볼 것이다. 롤즈는 ‘중첩적 합의’의 과정에서 합당한 교설로서 종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담보한 종교의 번역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들을 통해 공적 이성의 주요 특징인 상호성과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적 이성의 공적 이성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확대된 사고’와 ‘이중 보기’로 통해 종교적 이성의 ‘합리성’, ‘포용성’, ‘공공성’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공적 이성, 종교적 이성, 반지성주의, 미로슬라브 볼프, 존 롤즈, 위르겐 하버마스
